

보해저축銀 예금자 달래기 총력

“1000억 유동성 확보... 6개월 이전이라도 영업재개”

예보, 광주·목포 설명회... 정부·목포시도 긴급진화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21일 광주와 목포에서 예금자 설명회를 열어 예금자 달래기에 나섰다.

보해측은 계획 중인 증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유동성이 확보되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6개월 이전이라도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예보는 “5000만원 이하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보존된다”며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이어 예금자 보호대책, 가지급금 지급 방법, 보험금 지급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백명의 예금자들은 30여 분간의 설명회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은행 앞 인도에서 설명문을 꼼꼼하게 읽는 등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다.

목포의 설명회에 참석한 김모씨는 “모기업인 보해양조를 있어 안심을 하고 예금을 맡겼고 불안했지만 찾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태가 왔다”며 “보해가 어렵다고 해서 친지들에게 연락까지 해서 돈을 맡겼는데 보해양조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모씨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아 생계비를 저축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며 “당장 찾을 길이 없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예금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와 보해, 목포시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보해는 이날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계획 중인 증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유동성이 확보되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6개월 이전이라도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해는 대주인 보해양조를 중심으로 15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하는 한편 보해저축은행의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시급히 매각해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영 정상화의 일정으로 오는 25일까지 보해양조의 증자를 통해 5.6% BIS비율을 확보하고 3월 중 보해저축은행의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감독당국과 협의의 통해 적절한 시기에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종득 목포시장도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2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보해저축은행 광주지점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의 설명회에 참석한 예금주들이 공사 직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업銀, 직원 생산성 시중은행중 최고

신한, 당기순익 1조6484억 1위 차지

지난해 시중은행 가운데 기업은행 직원들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 6484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그룹 최고경영진 간 내분에도 불구하고 영업력이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120.2% 증가했다. 2009년 말 40%였던 은행부문의 이익기여도는 지난해 말 52%로 높아졌다.

하지만, 직원 1인당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적은 기업은행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시중은행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공정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말 정

규직원 수가 7138명으로 신한은행의 1만678명보다 3540명 적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순이익을 정규직원 수로 나눈 생산성은 기업은행이 약 1억8100만원으로 신한은행의 약 1억5400만원을 웃돌았다.

하나은행은 약 1억18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고 우리은행은 약 8000만원을 기록해 1억원에 못 미쳤다. 정규직원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약 6000억원 늘어난 대손충당금과 6525억원의 회망퇴직 관련 비용 등으로 지난해 실적이 가파르도록 하락을 유지하면서 1인당 생산성도 약 100만원에 그쳤다.

연협뉴스

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 인재양성' 공모 선정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21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모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광주전략산업 에코-에듀 프로젝트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정보가전·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의 친환경 융합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치열한 경합이 이뤄졌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날부터 3월 말까지 관산업기반 친환경 융합기술, 고효율 전력전자회로 설계, 그린카 전장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과정 등 총 3개 과정 60명을 모집해 테크노파크와 전자부품연구원, 조선이공대학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뒤 수료생들을 52개 중소 벤처기업에 취업시킬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삼성전자 내일 광주서 '동반성장 설명회'

삼성전자는 23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립장 교육장에서 '전략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한다. 진흥회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핵

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전략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김영도 상무는 “이번 설명회는 협력사들의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동반성장을 논의하는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통운 인수전 불붙었다

포스코·롯데·삼성 등 10곳 투자 안내서 발송

다음달 5일 예비입찰... 금호터미널 향방 관심

금호터미널 모기업인 대한통운의 매각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유통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지역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금호터미널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대한통운 매각주간사를 맡은 산업은행M&A(인수합병)실과 노무라증권은 1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안내서(티저레터)를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유력한 인수 후보인 포스코, 롯데, 삼성, GS, CJ 등 그동안 대한통운 인수후보로 거론됐었던 국내 그룹사들이 대부분이다.

대한통운 입찰 절차의 첫 단계인 투자안내서 발송이 마무리되면서 인수후보군들도 입찰 참여를 위한 최종 검토에 들어가는 등 물밑작업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회사인 금호터미널도 대한통운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어 새 주

인이 누구냐에 따라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지역 유통업체가 주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대한통운 인수전에 반드시 참여한다”며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보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주력이 유통 분야이기 때문에 물류회사를 인수하면 상호 상승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한통운의 사업영역 중 어느 분야가 롯데그룹에 도움이 되는지, 적정 인수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도 이날 받은 투자안내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대한통운 인수전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매각주간사로부터 투자 안내서를 받아 실무진에서 보고 있다”며 “입찰의향서(LOI) 접수일인 다음달 4일까지는 인수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

고 말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의 참여 여부다. 삼성전자 자체의 수출물량만 연간 120조원에 이른다는데 삼성전자가 지주사로서 대한통운을 인수해 장기적으로 삼성 SDS와 결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대한통운 인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을 거듭 확인했다.

CJ그룹은 “인수전에 들어간다고도, 안 들어간다고도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처지”라는 입장만 밝혔다.

매각 주간사들은 다음달 4일 입찰의향서(LOI) 접수하고 5일 예비입찰을 한다. 또 인수 후보자 중에서 5월 13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같은달 27일 본계약 맺은 뒤 6월30일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대상 지분은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보유한 18.98%와 18.62% 등 총 37.6%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건설업체도 수주 '반토막'

지난해 8350억 실적... 전년보다 47.9% 감소

지난해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이 급감한데 이어 광주지역 건설업체도 전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109개 회원사의 201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를 접수한 결과, 전체 수주액이 8350억원으로 2009년의 1조6044억원보다 47.9%(7693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토목분야가 3105억원으로 전년도의 2380억원보다 30.4%(724억원) 증가했고, 산업건설비분야 123억원으로 3.1%(3억원) 증가했다. 반면 건축분야는 4646억원으로 전년도(1조2487억원)보다 62.8%(7840억원)나 급감했으며, 조정도 474억원으로 전년보다 55.1%(581억원) 크게 줄어들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토목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부진에도 하수관거·정수장·도로공사 등의 수주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건축분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주택 발주 감소와 민간 부분의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회회사 가운데 500억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3개사(2.8%)에 그쳤고,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15개사(13.8%),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개사(18.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개사(43.1%), 10억원 미만은 14개사(12.8%)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동안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10개사(9.2%)에 달했고, 전체 회원의 65.1%(71개사)가 50억원 미만을 수주하거나 무실적에 그치는 등 지난해 광주지역의 대부분 건설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2.8% 감액하고 이미 발주한 공사에 대한 완성 위주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공공발주 물량이 줄고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2.8% 감액하고 이미 발주한 공사에 대한 완성 위주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공공발주 물량이 줄고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협약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흥식·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순천대학교(총장 임상규·네번째)는 21일 순천대 회의실에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벌 인재양성과 우수인재 채용 및 취업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공)

부영, 무주리조트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

(주)부영주택이 무주리조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대한전선은 21일 계열사인 무주리조트 매각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에 부영주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앞서 지난달 중순까지 매각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사를 통해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14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이

후 비딩 과정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부영주택과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한 뒤 오는 25일까지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각 금액은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으며, 실사 이후 가격 결정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05.30 (-7.84)
코스닥지수	520.59 (+2.04)
금리 (국고채 3년)	3.96% (+0.02)
원·달러 환율	1,118.10원 (+6.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